

LOCAL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정철원 담양군수 “5대 분야 핵심 공약 실천을”

나주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14~18일 접수...최대 500만원

나주시는 2025년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소를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 업소는 총 31곳으로 영업장 시작일이 1년 이상이면 3년 이내 영업장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주방, 홀, 화장실 등 노후화된 영업장 환경개선에 최대 500만원, 임시 테이블 교체 최대 40만원(자부담 50%), 장애인 경사로 설치 비용을 최대 8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영유아 전용 의자 구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업소 공간 분리 및 구획 공사까지 사업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고객층 수요를 반영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음식문화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해남. 공공일자리사업 전개
16일까지 참여자 197명 모집

해남군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과 중장년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5년 2차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미만, 주민등록세대 기준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군민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197명이다.

사업별로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 5명, 주요 관광지 시설 등 환경정비 67명, 읍·면 꽃 식재·관리 및 환경정비 9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27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다음달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소통·화합·혁신 통한 지역 발전 견인 강조
군민 일상 회복·경제적 충격 최소화 등 집중

정철원 담양군수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담양, 소통과 화합으로 더 행복한 담양’을 위해 5대 분야 핵심 공약사항 실천을 강조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정철원 군수는 최근 첫 간부회의에서 “군민하는 군수가 아닌 ‘함께 동행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군민과 약속했던 5대 분야 핵심 공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먼저 선거업무와 주말 열린 제10회 추월산 벚꽃축제가 안전하게 마

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시설 점검과 프로그램 정비 등 철저한 축제 준비와 함께 ‘머물다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주문했다.

또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영농철 불법소각 행위 단속과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하며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요 관

광지 환경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군수는 “불안정한 정국에 더해 국제 경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군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철원 군수는 지난 2일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돼 제45대 담양군수에 취임했다.

조국혁신당 소속인 정 군수는 재선거에서 51.82% (1만2860표)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 (48.17%·1만1956표)에게 904표 앞서며 당선,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사례가 됐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정철원 담양군수가 최근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담양, 소통과 화합으로 더 행복한 담양’을 위해 5대 분야 핵심 공약사항 실천을 강조했다.

신안 자은도서 최고의 춤꾼 가린다

‘2025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27일 1004뮤지엄파크 무대

신안군에서 최고의 춤꾼을 가리는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오는 27일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 주무대에서 ‘2025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2025 피아노 섬 축제’에 맞춰 진행된다.

지난 3월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총 38팀 (일반 22팀, 학생 16팀)이 신청을 마쳤으며,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는 16



일 본선 진출 20팀 (일반 12팀, 학생 8팀)이 가려진다.

본선에서는 팀별 5분 내외의 단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경연에서는 최종 시상자 12팀이 선 발된다.

일반부 상금은 대상 20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장려상 100만원 (4팀)이다. 학생부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2팀)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번에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헤니킴 (안무), MO.B (안무), HOZIN (스트리트 댄스) 3인이다.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에서 4위를 차지했던 마네킨은 게스트쇼를 선보인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무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영농현장 투입

133명...상반기 575명 배치

무안군은 올해 첫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라오스 노동자 133명을 영농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노동자 업무협약이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

해 입국한 외국인이 가장 8개월 동안 지역 농어촌에 고용되어 일하는 제도다.

라오스 계절노동자들은 지난 4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입국 직후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고용주 농가와 함께 갑염병 예방 관리, 약물 중독 예방,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라오스 계절노동자의 이름을 새긴 조끼를 나눠주며, ‘아’ 대신 이름

부르기 실천을 당부하는 등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라오스 386명, 필리핀 41명 등 427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148명을 포함해 총 575명의 계절노동자를 148개소의 농장에서 활용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계절노동자 입국을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계절노동자 제도를 확대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장성 백양사 고불매 ‘활짝’ 장성군 백양사 고불매가 봄바람에 고운 자태를 한껏 드러냈다. 고불매는 강릉 오죽헌 울곡매, 구례 화엄사 화엄매, 순천 선암사 선암매와 함께 ‘대한국민 4대 매화’로 불린다.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됐다. 사진제공=장성군

강진, 93억 투입 만덕호 수질 개선

강진군이 만덕지구 수질개선에 93억원

을 투입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강진군은 도암면 만덕·학장리 일원 만

덕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

진한다고 9일 밝혔다.

만덕호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질이 5등급 (TOC 기준 6.6mg/l)으로, 특히 유역 면적이 작아 강우 때 외부 유입이 적고, 사용된 물이 다시 만덕호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농업용수 수질 기준 (4등급) 충족을 목표로 수질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예산 93억2500만원 규모로, 이 중 80%에 해당하는 74억6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해 진행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인공습지 조성, 수질 정화 인공 식재림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s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XPERON

엑스페론